

서정주 시집 『질마재 神話』의 마을서사와 승화의 메커니즘

정 호 구*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2) 생계서사와 생활서사 |
| 2. 마을서사에 나타난 현실적 문제와
승화의 기제 | 3) 성애서사와 혼인서사 |
| 1) 장애서사와 질병서사 | 4) 교육서사와 교우서사 |
| | 3.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서정주의 제 6시집 『질마재 神話』(1975)가 서정주 시의 정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판단 아래,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시집을 구성하는 마을서사와 승화의 기제 속에 깃들여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

『질마재 神話』는 서정주의 직전의 시집 『冬天』(1968)과 서로 짝을 이루면서 서정주 시의 정수를 이치와 현실, 상상과 실제의 측면에서 구현하고 있다. 『질마재 신화』에 내재된 마을서사와 승화의 기제는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거니와 이는 인간생존사 속에서 일종의 ‘인간무리’로

* 충북대학교 교수

시작된 마을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직시하면서 그것을 다양하고도 차원 높은 정신에 의하여 해결하고 고양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질마재 신화』 속의 마을서사는 현실 문제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 때 장애서사와 질병서사, 생계서사와 생활서사, 성애서사와 혼인서사, 교육서사와 교우서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는 마침내 승화의 기제에 의하여 해결되고 치유됨으로써 당사자를 포함한 마을 전체의 안녕과 유지,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

『질마재 신화』의 마을서사가 지닌 구조적 특성은 방금 말한 현실적인 문제와 승화의 기제가 서사 속에서 함께 혼용되며 다중적인 관계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승화의 기제는 매우 탁월한 수준과 방법으로 서사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내용 전체를 건강한 긴장과 감동의 장으로 들어올린다.

『질마재 신화』에 내재된 승화의 주요 기제는 기존에 많이 언급되곤 했던 공동체의식과 윤리의식을 비롯하여 敬天사상과 下心의 정신, 우주적 진실과 무경계의식, 무위의 세계와 무한 및 무변의식, 형이상학적 믿음과 비가시적 세계의 상상 및 의미화 등, 그 정신의 수준이 매우 높고 승화의 힘이 강력하다. 그리고 이 같은 토대 위에서 발생하는 웃음의 힘 또한 승화의 기제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을서사와 승화의 기제는 현대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마을학’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질마재 神話』, 마을, 인간무리, 생존, 마을서사, 승화기제

1. 문제제기

서정주는 자신의 육성으로, 그가 등단 이후 탐구해온 시세계의 정수가

제 5시집 『冬天』(1968)에 갇혀 있다고 했다.¹⁾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서정주의 시적 정수는 제 5시집인 『冬天』과 더불어 제 6시집인 『질마재 神話』(1975)를 함께 거론할 때 그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여겨진다.²⁾

부연하자면 서정주는 제 5시집인 『冬天』에서 상상적·관념적 수준에서의 시적 정수를 드러내었으며, 이어서 『질마재 神話』에 이르러 실제적·현실적 수준에서의 시적 정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서정주는 이 두 시집의 창작과 출간을 통하여 소위 관념적 이치와 실제적 현실의 양면에서 그의 시적 정수를 구현한 셈이다.³⁾

이 글은 서정주의 시집 『질마재 神話』가 그의 시적 절정이자 진경을 논하는 자리에서 언급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마을서사’의 특수성과 ‘승화의 메커니즘’⁴⁾이 지닌 탁월함에 기인한다는 판단 아래 그 실상을

1) 현대시, <영상으로 보는 한국의 시인들1 : 魂의 시인 서정주>, 시네텔서울, 1998.

2) 여기서 ‘정수’라 함은 서정주가 첫 시집 『花蛇集』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탐구해온 실존과 죽음의 문제가 긴 여정을 거쳐 마침내 불교적 사유를 근간으로 삼아 해결되며 확장되었다는 점과 그것의 언어적 표현이 이 시인만의 독자적인 미학을 형성할 만큼 세련되고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뜻한다.

3) 이 두 시집 간의 긴밀한 연관관계와 상호간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승화(昇華, sublimation)는 화학에서 어떤 물질이 액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로, 또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위상전이(phase transition)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서는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의 하나로서 인간들이 자신의 부정적 특성 또는 욕구나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작용을 말한다. 여기서 화학의 영역은 인문학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많으나 논외로 하고,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의 영역에서 쓰이는 개념을 놓고 본다면 그 뜻이 상당히 협소하다. 무엇보다 승화를 방어기제의 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러하고, 사회적 울타리 속에서 의미화하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 이보다 확대된 개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승화의 개념은 동물적 본능과 에고중심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성숙, 해결과 重生의 과정 전 영역을 가리킨다. 그것을 『의식혁명』의 저자인 데이비드 호킨스의 견해와 그가 만든 의식지수를 빌려서 표현해 본다면 동물적 본능과 에고중심주의의 기준점인 의식지수 200 이상을 구현하는 정신성과 의식의 전 영역이 승화의 일에 속한다.

살펴보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시집 『질마재 神話』는 서정주가 탄생한 물리적인 근거지이면서 동시에 탈출지이기도 한 ‘질마재’로의 온전한 회귀이자 재귀이고 그것과의 화해이자 그를 통한 재탄생의 모습을 담은 시집이다. 이 시집은 우연일 수도 있겠으나 인생사의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갑년, 곧 그의 회갑이 되던 60세 때에 출간된 것으로서 그에 걸맞은 한 인간의 ‘탄생-탈출-성장-성숙-귀가-재탄생’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창조적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서정주의 시집 『질마재 神話』 속에 들어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산문시이자 이야기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만큼 이 시집에선 산문성과 서사성이 주된 기조를 형성하며 작품을 특징짓는다. 구체적으로 이 시집 속의 작품들이 지닌 산문성과 서사성은 ‘질마재’라는 한 마을을 문맥이자 배경이자 장소로 삼으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그 사건의 인물들을 통하여 이른바 ‘마을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마을서사는 서사적 전통 속에서 볼 때 매우 익숙한 형태이자 서사적 원형을 담고 있는 보고이다. 그만큼 마을서사는 인간사에 편재한 오래된

호킨스에게서 인간의 의식지수는 1에서 1000까지로 수치화되는데 구체적으로 1에서 200에 이르는 과정을 동물적 본능과 에고중심주의, 200에서 500에 이르는 과정을 지성에 기반한 객관주의와 이성주의, 500에서 1000에 이르는 길을 영성에 토대를 둔 전일적인 일심과 사랑의 영혼으로 구분한다. 이에 의지하여 승화의 개념을 확대된 의미로 다시 설명해 보면, 승화란 의식지수 200 이후부터 1000에 이르는 거대한 영역 전체를 가리키고 그런 만큼 승화의 수준과 경지도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 승화의 개념은 이와 같이 확대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동물적 본능과 에고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정신세계와 의식세계 그리고 마음과 세계관 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승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정신과 의식, 마음과 세계관의 수준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질마재 神話』에서 이 승화의 수준은 다른 어떤 시인이나 시집의 경우보다 높다.

이러한 개념을 설정하는 데 참고한 대표적인 저서를 소개한다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6./ 켄 윌버, 『의식의 스펙트럼』, 박정숙 옮김, 범양사, 2006./ 이동식, 『도정신치료입문』, 한강수, 2008./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혁명』, 백영미 옮김, 판미동, 2011./ 배철현, 『승화 :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21세기북스, 2020.

‘인간무리(human swarm)’의 이야기이다.⁵⁾ 그러나 그 마을서사를 다루는 창작자의 시선과 수준 그리고 안목에 따라 마을서사의 구조적 특성은 물론 그 의미와 환기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집 『질마재 神話』 속의 마을서사는 성숙한 시선과 안목 그리고 높은 수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 까닭은 마을이라는 한 세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의식이 근저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서 시인은 마을인식의 근간을 형성하는 생존의 차원과 승화의 차원을 모두 심도 있게 포착하여 구조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생존이라는 절박한 현실적 실재와 승화라는 정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동시에 철저히 탐구되어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정주의 시집 『질마재 神話』에 대해서는 형태적 특성⁶⁾, 신화성⁷⁾, 공동체 의식⁸⁾, 신라정신 및 영원성과의 연관성⁹⁾ 등의 문제가 가

- 5) 마크 모펫은 생물로서의 인간생존사와 진화사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인간무리(human swarm)’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마을 역시 그와 같은 ‘인간무리’의 한 가지 형태이다.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 나타난 마을에 대한 인식은 이런 관점과 상당히 닿아 있다: 마크 모펫, 『인간무리: 인간은 왜 무리지어 사는가』, 김성훈 옮김, 김영사, 2020.
- 6) 형태적 특성에 대해서는 『질마재 神話』의 발문을 쓴 박재삼 시인이 가장 먼저 언급하며 그 형식미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 시집의 제1부는 시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문시 형태로 구성되었지만 제2부는 비중은 적을지라도 ‘노래’를 염두에 둔 정형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서정주가 ‘형식미’를 의식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박재삼은 강조하고 있다. 박재삼, 『跋』, 서정주, 『질마재 神話』, 일지사, 1975, 83-85쪽.
- 7) 신화성은 이 시집의 제목이 『질마재 神話』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제목에서의 ‘신화’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신화와 그 함의가 다르다.
- 8) 무리와 집단은 ‘사회’나 ‘공동체’라는 것과 그 개념을 달리한다. 전자가 동물적인 생존행태 일반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법과 인간윤리를 중심에 두고 있는 인간들의 문명화된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삶의 한 모습이다. 『질마재 神話』 속의 공동체 의식의 의미를 강조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김수이의 것이 있다: 김수이,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공동체의 상상력-민간신앙을 경유하여』, 『한국문학연구』 48, 2015, 181-218쪽.
- 9) 대표적인 논문을 제시해본다: 남기혁, 『신라정신의 변안으로서의 『질마재 신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5, 2014, 101-132쪽/ 윤재웅, 『서정주 『질마재 신화』에

장 많이 논의되었고, 이 글의 주제와 연관된 서사 문제¹⁰⁾에 대해서도 다소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는 신화성과 공동체 의식이 반영하고 있는 근대 이전의 감각과 근대 이후의 감각이 매우 강조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가 처한 근대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것에 대한 지적, 정서적 사유를 더하면서 반성적 깊이를 갖추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¹¹⁾

하지만 이 시집은 위와 같은 의미를 만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치 ‘고전’을 읽는 데서 오는 것 같은 보편적 공감의 힘¹²⁾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이 시집 속의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마을서사가 지닌 높은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수준’이란 마을의 생존을 한가운데 두고 있는 현실성과 그 생존현실을 넘어서는 정신적 승화의 탁월한 힘이 구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잘 결합되었다는 점을 뜻한다. 서정주의 시집 『질마재 神話』는 생존의 리얼리티와 정신적 승화의 기제라는 양면이 함께 융합하여 한 자리에서 잘 미학화된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주가 여기서 생존의 리얼리티를 깊이 있게 포착하고 승화의 기제를 탁월하게 구사한 것은 이전 시집 『冬天』

미친 『삼국유사』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시학연구』 62, 2020, 135-163쪽.

- 10) 본 논문의 주제와 일부 연관된 ‘서사’ 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넓게 보아 형식주의적 접근을 한 고형진의 글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로써 서사의 형식적 구조를 정밀하게 밝힌 공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고의 접근방식과 시각을 달리 한다: 고형진, 『현대시의 서사 지향성과 미적 구조』, 시와시학사, 2003, 154-192쪽.
- 11) 대표적인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송기환, 「근대성과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질마재 신화』」, 『한민족어문학』 61, 2012, 553-584쪽/ 김봉재,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탈근대적 특성 - 70년대 미당의 유년기 자서전과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2, 2016, 41-79쪽.
- 12) 김수이가 그의 논문을 통하여 온갖 비난 속에서도 서정주 시에 대해 독자들이 느끼는 ‘매혹과 감동’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김수이는 ‘이야기적 동일성’과 ‘타자의 윤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김수이, 「서정주 시에 나타난 공동체와 이야기」, 『한국시학연구』 43, 2015, 9-39쪽.

에 이르기까지 그가 탐구해온 시적 정수로서의 생의 문제와 정신세계의 성취가 그대로 연속되어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시집 『질마재 神話』 속의 마을서사의 양상과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생존의 리얼리티와 승화의 정신적 실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그 의미를 읽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서사의 양상을 크게 네 가지 범주(세부적으로는 여덟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바, 그 분류의 기준은 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의 성격에 두었다. 이러한 분류는 시집 속의 전 작품을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도출한 결과임을 밝힌다.

2. 마을서사에 나타난 현실적 문제와 승화의 기제

1) 장애서사와 질병서사

서정주가 『질마재 神話』의 마을서사에서 주목한 것들 가운데 맨 앞자리에서 논의할 만한 것으로는 신체적 안녕이라는 인간 존재의 직접적이며 근본적인 생존욕구와 그 현실적 조건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른바 장애서사와 질병서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 장애와 질병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가장 절박하고 항시적인 생사와 생명유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분야의 서사이든 간에 서사전개의 핵심 모티베이션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점은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서도 동일하다.

그런데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서 이 유형의 서사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사를 맨 앞자리에서 논의하는 까닭은 한 생명체의 생존욕구와 그 유지라는 문제와 그것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인간무리이자 집단, 더 나아가 공동체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만큼 운명적이면서

신체적 감각을 동반하는 것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점의 승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개인, 가족 그리고 마을의 고통과 난제가 덜어지거나 해결되어 그 다음의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마재 神話』에서 「神仙 在坤이」, 「石女 한물宅의 한숨」,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 쓰게 되면」, 「꽃」, 「눈들 영감의 마른 명태」 등이 이에 속하는 대표 작품들이다.

본장의 테마인 장애서사와 질병서사 가운데서 먼저 장애서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서사에 해당되는 대표작이자 문제작은 「神仙 在坤이」와 「石女 한물宅의 한숨」이다. 「神仙 在坤이」에서 중심 인물은 재곤이다. 그는 지상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뜻이 그 이름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앓은뱅이의 처지이다. 작품에 따르면 그런 그는 성한 두 손으로 마을에서 이런저런 사소한 일거리를 맡아서 해 보지만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운명적이며 현실적인 장애로부터 작품 속의 서사가 시작되고 전개되거나와 그 서사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승화된 마음과 그 노력에 의하여 발전되고 성숙된다.

마을 사람들은 서사의 중심인물인 재곤이에게 보이지 않게 약속이나 한 듯이 그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 방안을 제공해준다. 그럼으로써 서사는 전반부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 갇든 마을 사람들의 승화의 심리이자 기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在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人情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罰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하여서, 그의 세 끼니의 밥과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 오고 있었읍니다.

- 「神仙 在坤이」의 부분¹³⁾

13) 서정주, 『질마재 神話』, 40쪽. 앞으로 인용되는 모든 작품은 1975년도에 일지사에서 발간된 『질마재 神話』의 표기를 원문 그대로 따를 것이다.

여기서 마을사람들이 마을의 인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늘이 상징하는 바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의식은 재곤이의 장애서사에 깃든 운명성과 비극성을 마을 사람들 전체가 고양된 인간의식으로 해결해 가는 서사의 모습을 창조한다. 그럼으로써 재곤이를 통하여 나타난 신체적 장애라는 운명적이며 대체할 수 없는 시련이자 난제는 일단 마을의 현실 속에서 해결의 장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취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재곤이의 신체적 장애는 이차적인 운명성과 비극성을 맞이하면서 서사의 복합성을 창조한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이와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재곤이는 마침내 현실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사실 때문이다. 이 작품 속에서 재곤이의 죽음의 원인은 소상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짐작하건대 그것은 마을사람들의 보살핌이 불가피하게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그것은 드디어 재곤이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이차적인 비극성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차원의 승화의 방식을 모색하고 내면화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을 전체가 감당해야 할 죄책감과 무력감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승화의 새로운 차원이자 방법으로 나타난 것은 ‘신선도’에 식견이 있다는 조선달 영감의 ‘신선사상’을 이끌어오는 것이다. 이 신선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시간의 확장과 지상세계라는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확대시키는 것인데 그런 세계를 가리켜 이 작품은 ‘신선세계’라고 부른다.

「在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도 鶴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千年은 된다고 하네.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 돋아나 하늘로 神仙살이를 하러 간 거여……」

- 「神仙 在坤이」의 부분¹⁴⁾

14) 위의 책, 41쪽.

위 인용문은 조선달 영감의 신선사상이 담겨 있는 부분이며 마을 사람들이 이에 함께 동감하면서 이의 없이 집단적으로 수용한 부분이다. 거북이 형상으로 생긴 재곤이는 목숨이 천년이나 되는 인간적 시간 너머의 시간을 사는 존재일 것이라는 생각, 그런 재곤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지루하여 스스로 날개를 달고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갔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인용문 속의 조선달 영감의 견해이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받아들인 내용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재곤이의 비극적인 죽음은 자발적인 신선살이로 전변되고 승화되었으며, 그것의 진위와 관계없이 마을 사람들은 이 신선사상을 수용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지상의 비극성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石女 한물宅의 한숨』도 장애서사에 속한다. 한물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른바 ‘석녀’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심각한 장애의 일종이었다. 이런 한물댁은 스스로의 운명적인 장애를 자인하고 남편에게 소실을 얻어준 후 마을 언덕 위 솔밭 옆에 홀로 살고 있다. 이 한물댁의 장애를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서사는 두 가지 차원의 승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물댁의 장애가 빚어낸 현실적 비애와 마을의 난제를 넘어서게 한다. 그 하나는 한물댁이 천성적으로 지닌 아름다움과 웃음의 매력으로 인하여 마을의 자연과 곡물과 짐승들까지 힘을 얻으며 생기 넘치는 모양새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물댁의 한숨소리가 한물댁의 뒷산 솔바람 소리와 포개어져 맑은 소리를 내는 우주적 신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물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장애와 더불어 마흔 몇 살 쯤의 나이에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만, 이차적이며 중첩되는 비극적 장애의 서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그러나 그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좌절과 비애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자연과 자연사, 농작물과 동물이라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과의 화응을 통하여 새 차원에서의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승화의 길을 열어보이고 서사를 해결의 장으로

전환시킨다.

요컨대 앞의 두 작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질마재 神話』 속의 장에서 사에서 문제의 한 영역을 이루는 것은 인간적 생존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 영역은 인간 이외 혹은 인간 너머의 시공간과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하여 공유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적 생존현실의 비애와 비극은 인간적 차원에서 해결될 때 가장 직접적이고 만족스럽다. 하지만 이런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이와는 다른 차원과 시각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그 해결의 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질마재 神話』에서 장에서사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질병서사이다. 신체적 질병은 인간의 목숨과 직결된 위기상황이다.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서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 쓰게 되면」과 「꽃」을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여름 학질에 여러 직 앓아 영 못 쓰게 되면」에서 서사의 주인공인 어린 소년은 여러 번 ‘학질’을 앓아온 터라 몸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 신체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이 이 서사의 출발점이다. 그런 출발지점에서 어린 소년의 아버지는 산과 바다와 들녘과 마을로 통하는 외진 네 갈림길의 넓은 바위 위에 어린 주인공을 벌거벗겨 등에 다 북숭아 푸른 잎을 밥풀로 이겨 붙이고는 엎드려 있으라는 처방을 하고 가버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어린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이자 처방대로 이 장소에서 홀로 발열과 오한을 느끼며 앓고 있거니와 그것(꽃)은 어느 어느 시점에 이르러 병세가 가라앉는 치유의 사건이자 장소가 된다. 어린 소년의 아버지는 이 무렵쯤 바위가 있는 장소로 돌아와 어린 소년을 등에 업고 가고 그림으로써 어린 소년의 질병은 회복된다.

이 질병서사에는 질병을 치유하고 승화시키는 네 가지 세계가 등장한다. 그 하나는 산과 바다와 들녘과 마을로 통하는 갈림길이고, 그 둘은 그 갈림길의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 있는 너럭바위이며, 그 셋은 그 너

력바위 위에 발가벗겨진 채 알몸으로 복숭아나무의 푸른 잎을 밥풀로 짓이겨 붙이고 엮으려 있는 어린 아이이고, 그 넷은 그 어린 아이가 건디며 통과해야 할 혼자만의 자연적이며 우주적인 시공간과 아버지에 대한 소년의 무모할 정도의 순정한 믿음이다.

이 네 가지는 다 조금씩 다른 의미와 정서를 불러일으키나 이 승화를 위한 세계를 거칠게 종합해보면 하늘과 땅, 지상과 인간 및 인간계의 온전한 열림과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의 질병은 이와 같은 세계의 막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막힘의 해소에 의하여 어린아이의 질병이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질마재 神話』 속에서 질병서사의 또 다른 작품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꽃』이다. 여기서 꽃은 사람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들이 가까이 다가 가면 눈병을 일으키는 신성하지만 두려운 존재이다. 이 사실은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경험적 진실이다. 그 진실이자 사실을 고스란히 믿고 존중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질병은 꽃으로 표상된 최고의 미적 대상을 신성하고 두려운 외경의 존재로 여길 때에 해결되고 승화된다는 생각이 깃들여 있다. 따라서 여기서 질병서사의 출발은 이 외경의 마음을 저버릴 때 시작되는 것이고, 그 회복은 이 외경과 같은 숭고한 마음을 간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아주 특별한 한 예외가 있어서 흥미롭다. 그것은 송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그 송아지가 막 발을 갈 만큼 자라게 되는, 만 두 살 정도의 나이 때쯤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 꽃들과 가까이 있어도 질병(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생명의 고조된 상태’야말로 어떤 대상과도 어긋나지 않는 온전한 합일과 조화의 상태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질마재 神話』 속의 장애서사와 질병서사는 아주 현실적인 생명체의 신체적 생존지점에서 시작됨으로써 삶의 첫 절박한 장면을 환기시켜주는 한편,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생존이라는 좁고 닫힌 영역을 넘어서서 보다 더 넓고 열린 세계를 상상하고 만나게 하는 승화의

가능성을 크고 다양하게 열어놓은 모습을 띠고 있다. 인간에게 생존은 물질적 현실처럼 구체적이지만 생존 너머의 생각의 세계는 환상이라고 불릴 만큼 비물질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그 환상의 힘은 대단하다. 『질마재 神話』는 이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그것을 한 자리에서 융합시킨 마을서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2) 생계서사와 생활서사

인간과 인류의 생존사에서 신체의 장애와 질병 다음으로 다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아가는 생계와 생활의 문제이다. 의식주로 표상되는 생계와 생활의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마을이나 그보다 크고 작은 여러 무리와 집단 그리고 공동체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만큼 생계와 생활은 개인의 영역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개인의 영역보다 더 큰 여러 무리와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 연관된 인간과 인류사의 과제이다.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서 생계서사와 생활서사는 마을서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본래 마을이란 것이 생존의 또다른 형태인 생계와 생활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지고 지속되는 세계라고 할 때 이 점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작품 『박꽃 時間』, 『단골 巫堂네 머슴 아이』, 『深思熟考』, 『결궁배미』, 『大兎年』, 『沈香』, 『李三晩』이라는 神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먼저 『박꽃 時間』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생계서사와 생활서사의 중심축은 각 가정에 저녁밥을 지을 식량(양식)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주지하다시피 의식주의 첫 자리에 놓이게 되는 식량 문제는 수많은 생계서사와 생활서사의 보편적이며 직접적인 모티베이션이다. 이 점은 작품 『박꽃 時間』에서 그대로 드러나거니와 여기서 박꽃시간은 마을 사람들이 식량을 살피고 확인하면서 저녁밥을 지을 때를 가리킨다. 작품에 따르면 마을의 꽃시계의 역할을 하는 박꽃이 하얗게 피기 시작하면 질마

재 마을의 여인들은 그 자연물의 시간적 기호에 맞춰 저녁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런 질마재 마을에는 성찬은 아니어도 저녁식사를 건너뛰어야 할 정도로 궁핍한 가정은 많지 않다고 작품 속의 화자는 전한다. 그렇지만 그 작품 속의 화자는 아주 일부의 가난한 가정은 저녁밥을 지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임을 밝히면서 이 일을 초점화하여 서사의 한가운데에 배치하는 가운데 그 생계서사이자 생활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혹 興夫네같이 그 겉보리쌀마저 동나버린 집안이 있어 그 박꽃 時間의 한 귀퉁이가 허전하게 되면, 江南서 온 제비가 들어 그 허전한 데서 파다거리기도 하고 그 파다거리는 춤에 부쳐 「그리 말어, 興夫네. 五穀百果도 常平通寶도 金銀寶貨도 다 그 박꽃 열매 바가지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닌갑네」 잘 타일러 알아듣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꽃 時間은 아직 우구러지는 일도 뒤틀리는 일도, 덜어지는 일도 더하는 일도 없이 꼭 그 純白의 金質量 그대로를 잘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 「박꽃 時間」의 부분¹⁵⁾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질마재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선 ‘박꽃 피는 시간’에 저녁밥을 지을 수 없는 생계의 극한 상황을 맞이한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강남서 온 제비와 같은 역할을 맡아서 보이지 않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신적 차원인 ‘홍부 이야기’의 담론적 의미를 공유하고 유포하기도 한다. 이것은 현실해결의 두 가지 길로서, 궁극적으로 이 서사가 희망담론이 되도록 하는 데로 이끈다.

다시 위 인용문이 담긴 작품 「박꽃 時間」을 보면 질마재 마을에는 하

15) 위의 책, 22쪽.

나의 불문율이 있다. 그것은 적어도 저녁밥을 거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불문율이다. 작품에 따르면 질마재 마을에선 여태껏 그 불문율이 잘 지켜져 내려왔고 그것은 저녁마다 찾아오는 박꽃 시간을 ‘순백의 시간’이 되게 하는 승화의 기제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작품 속의 생계서사와 생활서사는 인간 생명체에게 엄습하는 가난이라는 극한의 어려움을 한편으로는 사실적으로 관찰하면서 해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탐구하고 승화시켜 나아감으로써 해결하는 이중구조를 띠고 있다.

방금 논의한 작품 「박꽃 時間」과 더불어 「大兪年」과 「결궁배미」에서도 이 ‘밥’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생계서사와 생활서사가 전개된다. 「大兪年」은 흉년마다 찾아오는 식량의 부족을 해소하고 승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결궁배미」는 식량의 생산을 위해 고단하고 고통은 농사일을 고차원의 정신이 내재된 노래를 부름으로써 해소하고 승화시키는 서사적 구성을 보여준다.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서 ‘밥’이라는 직접적 생사 문제의 원인 다음으로 생계서사와 생활서사의 계기이자 중요 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 맥락과 심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생계와 생활의 문제이다. 여기엔 ‘밥의 사회화’와 ‘밥의 심리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른바 직접적인 생존해결 문제 너머의 다른 차원이 작용하고 있다. 「단골 巫堂네 머슴 아이」, 「深思熟考」, 「沈香」, 「李三晩이라는 神」과 같은 작품이 이에 속하는 대표작들이다.

작품 「단골 巫堂네 머슴 아이」에서 주인공에 해당되는 인물인 단골 무당네 머슴 아이는 마을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신분을 가진 존재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단골 무당네 머슴 아이를 중심에 두고 전개되는 「단골 巫堂네 머슴 아이」 속의 생계서사이자 생활서사에서 단골 무당네 머슴아이의 처지는 인간의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낮아지려고 해야 낮아질 수가 없는 무계급의 비존재이자 무존재와 같은 소외인물이다. 사회적

계층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하층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만큼, 신분질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바깥 지대의 인물과 같다. 그것을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세상에서도 제일로 싸디싼 아이가 세상에서도 제일로 천한 단골 巫堂네 집 꼬마등이 머슴이 되었습니다. 단골 巫堂네 집 노란 똥개는 이 아이보단 그래도 값이 비싸서, 끼니마다 으어먹는 물누렁지 찌끄레기도 개보단 먼저 차례도 오지는 안했습니다.

- 「단골 巫堂네 머슴 아이」의 부분¹⁶⁾

단골 무당네만 해도 무당의 일을 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천하기 그지 없는 최하층의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형편인데, 바로 그 단골 무당네의 가족사회 속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처해 있는 인물이 그 집의 꼬마 머슴이다. 이 작품에서 ‘꼬마등이 머슴’으로 불리는 최하 밑바닥의 신분인이 ‘꼬마등이 머슴’은 위 인용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단골 무당네의 노란 똥개보다도 값이 싼 존재이다.

바로 이 단골 무당네라는 가족사회 속의 ‘꼬마등이 머슴’이 인간생명체가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 삶의 극한이자 극단에서 일어나는 비애감의 원천이자 생계서사와 생활서사를 유발시키는 원천이다. 이 서사의 흐름에 작품은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따라서 할애된 양에 비례하여 비애감도 커진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서 서사는 반전을 일으키며 해결의 장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승화기제를 통하여 무거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작품의 중심인물인 꼬마등이 머슴에게서 생겨난 ‘눈웃음’이 그 기제이자 기호이다.

단골 巫堂네 長鼓와 小鼓, 북, 징과 징채를 늘 항상 맡아 가지고 메고 들고, 단골 巫堂 뒤를 졸래졸래 뒤따라 다니는 게 이 아이의 職業이었는데

16) 위의 책, 22쪽.

데, 그러자니, 사람마다 職業에 따라 이쿠는 눈웃음 그 눈웃음을 이 아
이도 따로 하나 만들어 지니게는 되었습니다.

- 『단골 巫堂네 머슴아이』의 부분¹⁷⁾

흥미로운 것은 꼬마둥이 머슴의 이 ‘눈웃음’은 그가 신분질서의 최하
층이자 신분질서 바깥인 이역에서 익힌 기술이자 기교라는 것이다. 여기
엔 삶의 수단이라는 도구적 속성도 강하게 배어 있지만 이는 그것 이상
의 인간사와 우주사에 대한 통찰의 반영물이라는 의미를 환기시킨다. 이
런 꼬마둥이 머슴의 ‘눈웃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세련미와 깊
이를 지니게 된다고 작품은 전하는데 그것은 어느 임계지점에 이르러
마침내 기성의 신분질서를 전복시키는 하나의 위력이 됨으로써 이 서사
에 특별한 반전과 승화의 힘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이 아이는 어느 사이 제가 이 마을의 그 敎主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언간에 그 쓰는 말투가 해딱 달라져 버렸읍
니다.

「……헤헤에이, 제밀힐 것! 괜스리는 씨월거려 쫓능구만 그리여. 가만
히 그만 있지나 못허고……」 저의 집 主人 - 단골 巫堂 보고도 이렇게
어른 말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쫓 되면서부터 이 아이의 長鼓, 小鼓, 북, 징과 징채를 메고 다
니는 걸음걸이는 점점 점 더 점잖해졌고, 그의 낮의 웃음을 보고서 마을
사람들이占치는 가짓數도 또 차차로히 늘어났읍니다.

- 『단골 巫堂네 머슴아이』의 부분¹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꼬마둥이 머슴은 ‘교주’의 신분으로까지 격상
되는 변전이 일어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꼬마둥이 머슴의 말과 행동은 점잖은 어른의 그것으로 승격되었다. 말하

17) 위의 책, 22쪽.

18) 위의 책, 23쪽.

자면 그는 점점 더 신령한 존재로서 삶과 우주의 징후를 담고 있는 일종의 유력한 기호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 속의 서사구조가 지닌 승화의 특수성이다.

다음으로 작품 『深思熟考』와 『沈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작품에서 생계서사와 생활서사는 심리적인 측면에 의하여 좌우된다. 먼저 『深思熟考』에서 서사는 뱃사람인 백문순 가정의 사형제 가운데서 만형인 백문순이 봄날의 바다 풍랑에 휘말려 목숨을 빼앗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현실에서 아직 살아 있는 삼형제는 그 현실을 심리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생계와 생활 파탄의 길로 접어든다. 그 심리적 비극성은 너무 심각하여 대물림하듯 이어지고 그것은 비합리적이기까지 하여서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지경까지 된다.

그러나 한 줄기 대반전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백문순의 막내 아우인 백준옥의 가정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웃음과 아양’의 덕분이다. 마을 사람들을 가끔씩 환하게도 만드는 이 웃음과 아양은 마침내 백준옥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웃음과 아양이 훌륭한 백풍식을 통하여 바닷물에 배를 부리는 생계와 생활의 복원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생계서사이자 생활서사는 그 미해결의 어두운 시간을 마감하고 새로운 신생의 싹을 보이며 해결되는 건강한 생계와 생활의 장을 창조한다.

다음으로 『沈香』을 보면 여기서 생계서사와 생활서사의 중심은 사회적이면서 집단적인 심리와 정신이다.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침향을 만들기 위하여 산골물인 육수와 바닷물인 조류가 합수하는 지점에 굽직한 참나무 토막을 잠겨 두는데 이것을 꺼내어 쓰기까지는 이삼백 년에서 천년까지 걸린다. 그러니까 이 침향 만들기의 서사에서는 사회적, 집단적인 심리적 믿음과 지연, 인내와 연속의 시간이 기저를 이룬다. 이런 심리적 상태는 생계서사와 생활서사의 현실이면서 동시에 최고조의 승화의 결실을 만들어내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 『질마재 神話』 속의 생계서사와 생활서사에 대해 논의해 보

았다. 의식주의 해결을 위한 마을서사로서의 이 생계서사와 생활서사는 한 극단에서 생계현실과 생활현실의 어려움을 관찰하고 드러내면서 이를 다양한 방식과 새로운 차원의 시선으로 승화시키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관찰하고 드러내는 일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승화의 길을 열어가는 시인의 안목과 지향성이 서사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3) 성애서사와 혼인서사

서정주의 시집 『질마재 神話』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서사양태는 성애서사와 혼인서사이다. 이것은 질마재 마을의 현실상일 수도 있고, 인간사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으며, 서정주가 시작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온 육체성의 탐구라는 문제와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¹⁹⁾

어쨌든 『질마재 神話』에서 성애서사와 혼인서사에 해당되는 작품은 그 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이들이 빚어내는 서사의 현실적 출발 형태뿐만 아니라 그 승화의 방식도 매우 다채로우며 그에 담긴 정신적 수준도 고차원의 높이를 지니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新婦」, 「海湓」,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엇지르고 걸어왔을 때」, 「姦通事件과 우물」, 「까치마늘」, 「말 피」, 「알뿔집 개피떡」, 「金庾信風」, 「소×한 놈」, 「石女 한물宅의 한숨」 등을 들 수 있다.

성애서사와 혼인서사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편의상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을 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우선 성애서사에 해당되는 작품들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姦通事件과 우물」, 「말 피」,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엇지르고 걸어왔을 때」가 이에 속하는 대표작이다.

19) 서정주의 첫 시집 『花蛇集』에서부터 ‘육체성’, ‘에로스’, ‘성애’ 등으로 불릴 수 있는 인간의 본능, 욕망, 운명적 조건은 시창작과 인생탐구의 원천이었다. 이 점은 그 이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승화의 길을 열어가며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된다.

『姦通事件과 우물』은 작품 제목 그대로 ‘간통사건’을 중심에 두고 구성된 성애서사이다. 마을에서 간혹 일어나는 간통사건은 그야말로 질마재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이며 난감한 대사건이다. 이 작품의 내용에 따르면, 간통사건이 알려지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까지 튕겨져 나와 소문을 확산시키고 소요를 증폭시킨다. 마을은 이 소문과 소요로 뒤덮여 평정을 잃는다.

그런데 서사의 출발지점이면서 난제인 이 간통사건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의연하게 고도의 승화방식을 찾아내고 동원하여 해결해 나아간다. 그것은 첫째로 이 사건을 두고 하늘조차도 아파한다는 의식을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 둘째는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 집단 전체의 속죄의식으로서 마을의 공동우물을 가축용 여물로 메우고 한 해 동안 각자 산골이나 들판에 생수 구멍을 찾아내서 마실 물을 조달해내는 것이다.

이 하늘에 대한 마을 사람들 전체의 외경의식과 자발적인 속죄의식이 이 작품의 성애서사를 짐승성에서 신성성으로, 반윤리의 감각에서 윤리의 감각으로, 개체의식에서 공동체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긴장력과 지향성과 고양감의 행위이다.

다음으로 『질마재 神話』의 성애서사와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작품은 『말 피』이다. 이 작품은 성애서사 가운데서도 이별서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별의 방법과 능력에 담긴 승화의 메커니즘이 서사구조를 지배한다. 『말 피』에서 전해주는 질마재 마을의 오래된 이별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질마재 마을에서는 뜨끈뜨끈하게 매운 말피를 그런 둘 사이에 좌악 검붉고 비리게 뿌려서 영영 情떨어져 버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 「말 피」의 부분²⁰⁾

그러니까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질마재 마을에서는 남녀간에 이별을 할 때에 “뜨끈뜨끈하게 매운 말피”를 확 뿌리는 것이 이별이라는 행위를 단호한 매듭의 장으로 만드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이런 말피를 뿌리는 행위는 위 작품 속에서 서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시밭골 감나못집 실막둥이네 과부 어머니로부터 행해진다. 그녀는 사잇서방을 두고 연정을 나눈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인데 그 사잇서방은 물론 그를 함부로 찾아오는 남정네들을 멀리하기 위하여 대사립문에 인줄을 늘이고는 검붉은 말피를 흠뻑 뿌려 놓았던 것이다.

이 행위에 대하여 작품 속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 말피 이것은 물론 저 新羅 적 金庾信이가 天官女 앞에 타고 가던 제 말의 목을 잘라 뿌려 情떨어지게 했던 그 말피의 效力 그대로서, 李朝를 거쳐 日政初期까지 온 것입니다마는 어떨갑쇼? 요새의 그 시시껄렁한 여러 가지 離別의 方法들보단야 그래도 이게 훨씬 낫하기도 하고 좋지 안을갑쇼?

- 「말 피」의 부분²¹⁾

과부인 모시밭골 감나못집 실막둥이네 어머니와 그의 사잇서방과의 성애에 관련된 소문들,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다른 남정네들의 성적 침입은 이 말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 말끔히 해소되고 방어된다. 그 말피의 의미를 질마재 사람들은 알고 있으므로 가능했던 일이거나, 그와 더불어 위 인용문이 전해주는 ‘말피’의 기원과 전통은 그 의미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들어올린다. 요컨대 감나못집 실막둥이네 과부 어머니가 말피를 뿌린 행위는 단순한 이별의 선언이나 차단과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유신처럼 자신을 순정하게 지킨다는 자아검열과 성찰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말피를 중심에 두고 있는 「말 피」

20) 위의 책, 30쪽.

21) 위의 책, 31쪽.

속의 성에서사는 동물적 육체성과 반윤리에 기반한 난제를 말피를 뿌린다는 몇 단계의 승화된 행위와 의미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정신적 성장으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에서사와 더불어 혼인서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新婦』, 『海濫』, 『까치마늘』, 『알뿔집 개피떡』, 『金庾信風』, 『石女 한물宅의 한숨』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중 『新婦』와 『海濫』 그리고 『까치마늘』을 특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新婦』는 『질마재 神話』의 맨 앞에 수록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혼인서사 가운데서도 중심서사인 소위 ‘첫날밤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서사에서 핵심 모티프는 첫날밤을 맞이한 신랑의 신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신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부의 순정한 믿음과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 두 인물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그 대조적인 간극으로 인하여 작품의 서사전개에 화해와 해결의 장면이 도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 서사의 대조적인 간극과 갈등은 마침내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해소되는 데 도달한다. 그것을 승화의 방식이라고 부른다면 이 서사는 그로 인하여 특별한 감동의 순간을 가져온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이 작품의 ‘첫날밤 서사’는 소변을 보러 가던 신랑의 옷자락이 문틈에 끼인 것을 신부의 음탕함과 조급함으로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오해와 불신은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와 신방을 떠나게 만들고 신방과 신부는 결핍의 장소이자 인물이 된다. 이런 서사를 전환시켜 승화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신부의 의심할 줄 모르는 능력이다. 아예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믿음 그 자체로 신방과 신부의 자리를 무려 사오십년이나 지키고 있는 신부의 행위가 이 작품을 해결의 장으로 인도하고 있다. 신부의 이와 같은 행위 위에 신랑의 일시적인 궁금증과 안쓰러움이 개입된다. 그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마음이지만 이로 인하여 신부의 믿음과 기다림은 인간적

한계 너머의 차원으로 비상하는 축매가 된다.²²⁾

작품 『海湓』 속의 혼인서사도 문제적이다. 이 작품에서 서사의 출발은 어부였던 외할아버지가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겨울의 모진 바람에 휘말려 그만 빠져버리곤 돌아오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외할머니는 그 외할아버지를 잃고 살아가는 처지이다. 이 비극을 풀어줄 방안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 집의 생활도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이 도래하는 바, 그것은 해일로 인하여 바닷물이 외할머니 집의 마당에까지 몰려오는 일을 통해서이다. 마당까지 닻쳐오는 해일은 결코 환영할 만한 현실이 아니지만 외할머니는 이 해일을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남편인 할아버지의 기운을 느끼고 신혼시절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마는 것이다. 해일을 통한 죽은 남편과의 사랑의 회복, 이것은 이 작품 속의 서사에 깃들인 수준 높은 승화의 장면이다. 요컨대 이 작품의 혼인서사는 극한의 비극과 아픔을 현실적인 모티프로 삼으면서, 현실 너머에서 발휘할 수 있는 우주적 몽상과 물질적 상상력의 힘을 환기시킴으로써 승화의 모티프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두 작품은 인간과 인간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서사로 구성돼 있지만 『까치마늘』은 인간과 동물의 혼인서사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까치마늘』에서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단군신화의 서사이나 여기서는 그것의 이분처럼 유통되는 질마재의 단군신화 이야기를 새롭게 끌어들이고 있다. 말하자면 하늘의 아들인 환웅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간계로 하강하는데 그 신분감 지망생에는 곰과 호랑이뿐만 아니라 까치도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적 인간인 환웅의 아내가 되어 혼인이 이루어지는 데는 일정한 절차(쑥과 마늘을 먹고 건디는 통과 의식)가 요구된다. 그 절차를 건디며 통과한 자는 곰뿐이며 호랑이와 까치는 탈락자가

22) 이 작품에서 ‘첫날밤 서사’를 이끌어가는 외형적 주체는 신랑이다. 그러나 내적 주체는 신부이다. 이 주체의 이중성이 이 작품의 서사적 구조에 장력을 더해준다.

된다.

작품 『까치마늘』은 이 탈락자 가운데 까치에게 주목한다. 까치가 탈락 자임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처럼 사납게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의 호감을 받으면서 지내는 것은 조금 덜 아린 까치마늘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작품 『까치마늘』에서 서사의 출발인 ‘동물이 인간 되기’의 모티프에서 탈락자의 아픔은 까치마늘이라는 대체물에 의하여 해결되고 승화된다. 대체물로서의 까치마늘이야말로 이 혼인서사에서 혼인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되지 않게 하는 미묘한 신물이다.

끝으로 『金庾信風』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도 신물의 등가물인 계책은 혼인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기제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믿는, 서정주의 표현으로는 형이상학적인 마음이 상당히 크게 깃들여 있는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의 아들인 황떡보가 계책이라는 신물을 써서 혼인에 성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서사는 황떡보의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신물과 그에 깃든 마을사람들의 형이상성에 의하여 해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4) 교육서사와 교우서사

시집 『질마재 神話』에서 의미 있는 또 한 가지의 서사는 교육서사이다. 마을의 존재 의미가 인간생명의 탄생과 양육 그리고 교육이라는 현실문제에 있다고 볼 때 이와 같은 서사의 등장은 적절하고 자연스럽다. 『외할머니의 뒤편 뒷마루』, 『신발』, 『小者 李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기운』 등이 이 서사의 대표적 실례이다.

『외할머니의 뒤편 뒷마루』에서 서사는 어린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호된 꾸지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꾸지람을 하는 것은 교육을 위한 부모 된 자이자 어른 된 자로서의 의무이자 방편이다. 대체로 이런 교육은 혼한 일이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작품 속의 교육서사는

매우 특징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것은 꾸지람으로 대표되는 일차적인 교육을 넘어서 이것이 그 이후의 장으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발전되고 성숙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뒀안 툇마루』에서 교육과 서사는 일차적인 꾸지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 이차적인 교육과 장소를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교육과 서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차적인 세계이자 교육의 장소는 작품 제목에 그대로 표출되어 있듯이 ‘외할머니의 뒀안 툇마루’이다. 이 뒀안 툇마루라는 교육장소에는 외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와 그 딸들이 닦아내려온 툇마루의 윤기가 있으며,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의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가 있다. 이 작품에서 이 뒀안 툇마루는 어머니의 꾸지람도 범접할 수 없는 ‘성소’이다. 그곳에서 어린 아이는 외할머니의 비호가 담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툇마루가 발산하는 윤기의 역사성과 연속성에 의지하면서 언어가 없는 교육을 받는다. 그것은 사랑과 역사성과 연속성이 만들어낸 교육이다.

『신발』도 교육서사로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특히 양육서사라고 불릴 수 있는 교육서사의 한 양태로서 이 작품 속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정서적 원체험이 무엇인지를 사유케 한다.

나보고 명절날 신으라고 아버지가 사다 주신 내 신발을 나는 먼 바다로 흘러내리는 개울물에서 장난하고 놀다가 그만 떼내려 보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내 이 신발은 벌써 邊山 窠등 밑의 개 안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온갖 바닷가를 내 대신 굽이치며 돌아다니고 있을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그것 대신의 신발을 또 한 켤레 사다가 신겨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용품일 뿐, 그 대용품을 신고 명절을 맞이해야 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내 신발을 사 신게 된 뒤에도 예순이 다 된 지금까지 나는 아직 대용품으로 신발을 사 신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 그대로 있습니다.

- 『신발』의 전문²³⁾

위 인용시의 서사는 아버지가 명절을 맞이하여 어린 자녀에게 신발을 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명절에 어린이에게 신발과 옷 등을 사주는 것은 단순한 물건의 제공이 아니라 의식으로서의 성격까지도 지닌다. 그것은 한 어린 아이의 성장을 축원하는 어른들의 양육 행위이자 교육의 일인 것이다.

위 인용시에서 이런 신발을 선사받은 어린아이는 개울물에서 놀다가 그만 신발을 떼내려 보내고 만다. 신발의 분실과 그로 인한 상실감, 이것이 이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끝까지 찾지 못하는 결말로써 서사의 특수성을 구축한다. 하지만 이 작품의 해결책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신발이 도구적인 물건이거나 소비품일 수 없다는 어린아이의 원체험이 끝까지 살아 있음으로써 이 작품의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위 인용시에서 아버지는 어린 자녀에게 새 신발을 다시 사다준다. 그러나 그것은 대용품으로서의 감정만을 전달해줄 뿐 본래의 원체험을 대체하지 못한다. 첫 신발과의 만남은 불변의, 대체가 불가능한 첫 만남이자 그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장한 어린 자녀는 이 원체험을 성인이 된 뒤까지도 그대로 지니고 산다. 그것은 그를 지키는 감정과 내면세계의 핵이며 삶의 신성한 기억이자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부모의 의도와 무관하게 잘 양육되고 교육된 결실물이 갖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마재 神話』에서 교육서사는 어린이의 미숙함을 일깨우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현실적 차원과 더불어 현실 너머의 차원에서도 새롭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킴으로써 중층의 효과를 유발한다. 「외할머니의 뒤편 틈마루」의 경우도 그러하고, 「신발」 역시 그러하다. 이것은 상세한 논의를 하지 않겠으나 「小者 李 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에서도 동일하게

23) 위의 책, 15쪽.

나타난다.

다음으론, 교육서사에 이어서 교우서사 혹은 친교서사라고 부를 만한 서사 양태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질마재 神話』 속에서 이 교우서사이자 친교서사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은 특히 상당히 수준 높은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승화기제를 활용한다.

교육서사와 교우서사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 속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육의 마지막 성취라고 할 만한 정신적 승화기제의 발견이 이 속에 들어 있고, 교우와 친교의 문제야말로 교육의 사회적 주제라고 할 때 이를 본 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시집 『질마재 神話』에서 교우서사 혹은 친교서사로 구성된 대표작은 「紙鳶勝負」, 「風便의 소식」, 「秋史와 白坡와 石顛」, 「마당房」이다. 이들은 마을 전체의 정신적 수준을 최고의 단계로 들어올리는 승화기제를 보여주는 작품들로서 『질마재 神話』 속의 서사가 품격을 얻는 데 크게 기여한다.

「紙鳶勝負」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교우이자 친교의 한 방식으로 연날리기 대회를 하는 것이 소재이다. 그 대회의 내용이 ‘지연 승부’인 것처럼 여기서 일차적 관심은 승부에 있다. 이 승부의 욕망은 서사를 전개시키는 원동력이 되거니와 마을 사람들은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 작품은 승부를 통하여 이기는 것만큼 지는 것에도 등가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은 대등한 일이다. 오히려 작품의 이면을 살펴보면 지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부여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選手들의 鳶 자세의 그 긴 鳶실들 끝에 매달은 鳶들을 마을에서 제일 높은 山봉우리 위에 날리고, 막상 勝負를 겨루어 서로 걸고 재주를 다하다가, 한 쪽 鳶이 그 鳶실이 끊겨 나간다 하드래도, 敗者は 「졌다」는 嘆息 속에 놓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解放된 自由의 끝없는

航行 속에 비로소 들어섭니다. 山 봉우리 우에서 버둥거리던 鳶이 그 끊긴 鳶실 끝을 단 채 하늘 멀리 까물거리며 사라져 가는데, 그 마음을 실어 보내면서 「어디까지라도 한번 가 보자」던 전 新羅 때부터의 한결 같은 悠遠感에 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生活에 실패해 한정없는 나그네 길을 떠나는 마당에도 보파리의 먼지 탈탈 털고 일어서서는 끊겨 풀려 나가는 鳶같이 가뜩히 가며, 보내는 사람들의 인삿말도 「팔자야 네놈 팔자가 상팔자구나」 이쯤 되는 겁니다.

- 「紙鳶勝負」의 부분²⁴⁾

위의 인용문에 잘 드러나 있듯이, 이기는 것도 좋고 지는 것도 좋은, 이른바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중도’의 안목과 견해가 이 작품에 깃들여 있다. 그것은 서정주가 『冬天』에 이르기까지 탐구한 지혜 가운데 대표적인 불교적 세계관의 핵심 내용과 연관된다. 특별히 세속사에서 부정하고 싶어 하는 ‘지는 일’의 의미가 위 작품에서 크게 긍정되고 의미화된다. 자유와 해방, 영원과 무한의 의미가 여기에 깃들이는 것이다.

「紙鳶勝負」의 이와 같은 승화기제는 단순히 ‘지연 승부’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확장되고 스며들어 어떤 사람의 어떤 실패도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대지혜의 장을 연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은 ‘패배’를 맞이하고 대하는 양측(떠나는 자와 떠나보내는 자)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을의 교우서사와 친교서사는 서로를 상생의 장으로 들어올리는 의식 향상의 길이 된다.

이런 교우서사와 친교서사는 작품 「風便의 소식」에서도 크게 두드러진다. 「風便의 소식」의 서사는 범속한 인간사회에서 참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두 사내는 범속한 사회생활을 작파해버리고 심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 작품 속 서사의 다음 이야기

24) 위의 책, 32-33쪽.

이다. 그 두 사내는 각각 ‘기회 보아서’와 ‘도통이나 해서’라는 이름을 갖고 한 사람은 산의 북쪽에, 다른 한 사람은 산의 남쪽에 초막을 짓고 머물게 된다.

세속사회의 욕망과 규범을 저버린 이 두 친구는 특별한 교우관계를 맺는다. 이는 작품 『風便의 소식』의 이후 서사를 이어가는 내용으로서, 그 교우관계의 새로운 법은 일체를 자아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수풀에 부는 바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표상된다. 이 수풀에 부는 바람은 그들의 교우서사를 이끌어가는 무위법의 주인공이다.

『아주 아름다운 바람이 북녘에서 불어와서 산골짜기 수풀의 나뭇잎들을 남쪽으로 아주 이쁘게 곱히면서 파다거리거던, 여보게, 『機會 보아서!』 자네가 보고 싶어 내가 자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알게.』 이것은 『道通이나 해서』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주 썩 좋은 南風이 불어서 산골짜기의 나뭇잎들을 북쪽으로 멋들어지게 곱히며 살랑거리거던 그건 또 내가 자네를 만나고 싶어 가는 信號니, 여보게 『道通이나 해서!』 그때는 자네가 그 어디쯤 마중 나와 있어도 좋으이.』 이것은 『機會 보아서』의 말이었습니다.

- 『風便의 소식』의 부분²⁵⁾

위 인용문은 무위법의 주인공인 수풀 속의 바람의 기호에 따라 두 친구가 인간적인 언어를 거치지 않고 만나면서 교류하고 상호 외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적인 말과 그 말의 심층인 욕망이 필요 없는 두 친구의 교우서사는 여기서 ‘도반’의 경지를 구현한다.

이들 사이엔 『紙鳶勝負』에서와 같이 이기고 지는 세속법이 무화되어 있다. 욕망 없이 사는 무위의 길이 깃들여 있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초탈의 길이 열려 있다. 이 두 가지 작품 속의 서사에 담긴 교우와 친교의 경지는 인간들이 범속성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승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25) 위의 책, 48-49쪽.

한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風便의 소식』이 앞의 인용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서사적 효과는 감소되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앞의 인용문 이후에서 벌어진 마을의 사람들의 수준 높은 교우와 친교의 현장을 전해준다.

그런데 『機會 보아서』와 『道通이나 해서』가 그렇게 해 빙글거리며 웃고 살던 때가 그 어느 때라고. 시방도 질마재 마을에 가면, 그 오랜 옛 습관은 꼬리롤망정 아직도 쪼그만큼 남아 있기는 남아 있습니다.

오래 이속하게 소식 없던 벗이 이 마을의 친구를 찾아들 때면 『거 자네 어딜 쏘다니다가 인제사 오나? 그렇지만 風便으론 소식 다 들었네.』 이 마을의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건 쪼끔인 대로 저 옛것의 꼬리이기사 꼬리입지요.

- 『風便의 소식』의 부분²⁶⁾

요컨대, ‘기회 보아서’와 ‘도통이나 해서’가 만들어낸 교우와 친교의 서사이자 수준이 질마재 마을 사람 일반에게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내려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교우와 친교의 장은 무위법의 세계를 이끌어 들임으로써 인간적 욕망과 가치의 한계를 넘어선다.

앞에서 논의한 두 작품 이외에 『秋史와 白坡와 石顚』이라는 작품이 담고 있는 교우서사와 친교서사는 또 다른 측면을 사유하게 한다. 그것은 이 시에 깃들인 민족성과 역사성의 가치이다.

『秋史와 白坡와 石顚』에서 서사의 중심인물은 추사와 백파와 석전이 다. 그리고 장소는 질마재 마을의 절인 선운사이다. 이 작품의 내용에 따르면 선운사의 스님인 백파한테 어느날 친구인 추사 김정희가 찾아왔다. 추사는 종이쪽지에 적어온 ‘돌이마(石顚)’라는 아호를 백파에게 주면서 누구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라고 하였다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파가 그것을 생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아끼고 있다가 이승을

26) 위의 책, 49쪽.

하직할 때쯤 “후세가 임자를 찾아서 주라”는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이 유언처럼 ‘석전’이라는 아호는 조선 말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야 박한영 스님에게 전해졌는데 그 박한영 스님은 이 땅의 불교를 지키며 대중정으로서 불교사를 발전시키고 또 불교의 일본화를 막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작품의 내용에 따르면 질마재 마을의 절 선운사 앞에는 백파의 비석에 추사가 쓴 “大器大用”이라는 말이 크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백파를 볼 수 있는 추사의 안목이 그대로 읽히는 문구라는 것이다.

백파와 추사 그리고 석전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는 이 교우서사와 친교서사에서 시공간의 한계는 물론 인간적 친소관계에 갇힐기 쉬운 사심이 온전히 사라져 버린다. 오로지 서로에 대한 외경과 신뢰, 공의와 공심에 기반한 이 땅의 번영과 정신적 품격에 대한 기대만이 있을 뿐이다. 교우서사와 친교서사의 승화 방식은 여기서 하나의 절정을 이룬다.

3. 결론

지금까지 서정주의 시적 정수가 구현되었다고 판단되는 그의 제6시집 『질마재 神話』의 마을서사를 특별히 승화의 기제에 주목하면서 살펴보았다.

이런 일을 수행하면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서사를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보았다. 그 첫째는 장애서사와 질병서사이고, 그 둘째는 생계서사와 생활서사이며, 그 셋째는 성애서사와 혼인서사이고, 그 넷째는 교육서사와 교우서사이다.

이런 분류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을 인류사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의 생물로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생존무리’라고 상정한 점이다. 이와 같은 마을은 인간사의 최소 단위인 가정보

다 덜 운명적이고, 매우 큰 단위인 국가보다 덜 형식적인, 다소 느슨한 집단이고 사회이며 공동체이다.²⁷⁾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질마재 神話』는 무엇보다 마을의 현실적 속성과 성격을 아주 잘 포착한 시집이다. 따라서 이 시집 속엔 마을이라는 인간무리의 원형이 충실하게 들어 있고, 그것은 앞서 분류한 네 가지의 그룹이자 유형으로 표출되고 설명될 수 있다.

『질마재 神話』의 서사가 힘을 갖고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까닭은 먼저 그 마을의 이와 같은 현실적 속성을 직시하여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을의 현실적 속성은 『질마재 신화』 속의 서사가 시작되고 추동되는 출발지점이자 계기이다.

그러나 이 시집 속의 서사가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직시와 더불어 ‘승화’라고 부를 수 있는 해결의 방식과 인간적 고양의 메커니즘이 다채롭고도 수준 높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성의 포착도 상당한 인간적 이해와 관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승화의 기제를 발견하고 제시하는 데는 더욱 더 큰 인간적 고뇌와 정신적 탐구의 수준이 요구된다.

『질마재 神話』의 서사는 이 양자를 구비하고 있다. 전자가 세속적인 중력의 세계라면 후자는 세속사를 풀어내고 들어 올리는 성장과 해결의 세계이다. 그리고 전자가 생존의 영역이라면 후자는 의미의 영역이다. 생존은 그 자체로 리얼한 것이어서 다른 설명이 불필요하지만 후자는 인간을 정신적 영역으로 변전시키고 들어 올리는 일이어서 많은 지적 고뇌가 요구된다.

27) 『질마재 神話』는 ‘마을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논의될 만하다. 최근 ‘마을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우리 시대가 처한 개인의 원자화와 글로벌사회라는 거대세계 사이에서 불안정해진 인간들에게 인간의 유전자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마을’의 재발견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질마재 神話』 속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적 인식과 그것의 승화를 통한 해결방식은 마을의 건강한 정착과 영위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승화의 토대가 되는 정신세계의 탐구와 고양은 더 비중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의 서사는 이 두 가지 세계를 양극으로 삼으면서 이를 구조화하고 있다. 전자는 후자에 의하여 해결되고, 후자는 전자에 의하여 그 위상이 강화된다. 그러나 이 시집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가지를 굳이 선택하여 제시하자면 그것은 후자이다. 『질마재 神話』의 구조적 탁월성과 거기에 내재된 시적 호소력은 승화의 메커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후자의 수준에 보다 크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서정주의 제5 시집 『冬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서정주가 자신의 육성으로 이 시집에 그의 시적 정수가 깃들여 있다고 말한 것은 그가 첫 시집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온 많은 과제가 이 시집에 이르러 불교를 중심에 두고 세계와 인간 및 인간사를 바라보는 일종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됨으로써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서정주 개인에게 『冬天』은 지혜의 집적체이자 해결의 텍스트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연속성을 갖고 출간된 시집이 『질마재 神話』이다. 『질마재 神話』는 그가 『冬天』에 이르기까지 탐구해온 지혜의 총체를 현실이자 그의 탄생지이며 고향인 질마재 마을에 대입하여 읽어내고 승화시킨 시집이다.

필자는 본고를 작성하면서 『질마재 神話』 속에서 포착된 인간생존의 현실상도 타당하고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이 시집을 구조적으로는 물론 시집 자체로서 탁월하게 만든 원천은 ‘승화의 기제’가 보여주는 수준과 다채로움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시라고 하는 양식 일반이, 그리고 서정주의 시 전체가 모두 승화의 기제에 기대고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시집 속의 승화의 기제는 본고를 시작하면서 맨 앞의 문제제기의 장에서 강조했듯이 이 시집을 ‘고전’의 반열에 들게 할 만큼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집에서 보여준 그 높은 수준의 승화기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질마재 神話』를 두고 기존 연구자들이 주로 언급했던 사회

공동체의식과 윤리의식 이외에 절대적인 敬天사상과 下心の 정신, 우주적 진실과 무경계의식, 무위의 세계와 무한 및 무변의식, 형이상학적 믿음과 비가시적 세계의 상상 및 의미화 등을 새롭게 언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제시한다면 ‘웃음의 유발’이라는 특성을 들 수 있다. 본래 웃음은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인간적 행위이자 기호인데 이 시집에서 유발되는 웃음은 앞에서 제시한 정신과 세계의 토대 위에서 발생하는 ‘선한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서정주는 『질마재 神話』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자 정신세계를 알고 원용하고 작동시킴으로써 마을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자 난제를 해결의 장으로 안내하고 풀어내면서 시의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공감의 수준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28) 엄경희는 『질마재 神話』에서의 웃음의 문제에 대해 그 원리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논의를 하면서 웃음 속에 내재된 승화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엄경희,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 나타난 웃음 유발의 원리와 효과』, 『어문연구』 37권 2호, 2009, 269-293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徐廷柱, 『질마재 神話』, 一志社, 1975.
_____, 『未堂徐廷柱詩全集 1-3』, 民音社, 1994.

2. 논저, 기타

- 고형진, 『현대시의 서사 지향성과 미적 구조』, 시와시학사, 2003.
김명철,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마을’ 사람들의 ‘性’ 의식』, 『비평문학』 34, 2009, 7-27쪽.
김봉재,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탈근대적 특성 - 70년대 미당의 유년기 자서전과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2, 2016, 41-79쪽.
김수이, 『서정주 시에 나타난 공동체와 이야기』, 『한국시학연구』 43, 2015, 9-39쪽.
_____,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공동체의 상상력- 민간신앙을 경유하여』, 『한국문학연구』 48, 2015, 181-218쪽.
남기혁, 『신라정신의 변안으로서의 『질마재 신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5, 2014, 101-132쪽.
박재삼, 『跋』, 『질마재 신화』, 일지사, 1975, 83-85쪽.
배철현, 『승화 :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21세기북스, 2020.
송기한, 『근대성과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질마재 신화』』, 『한민족어문학』 61, 2012, 553-584쪽.
엄경희,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 나타난 웃음 유발의 원리와 효과』, 『어문연구』 37권 2호, 2009, 269-293쪽.
윤재웅, 『서정주 『질마재 신화』에 미친 『삼국유사』의 영향에 대하여』,

- 『한국시학연구』 62, 2020, 135-163쪽.
- _____, 『누구의 흰가슴에 붉은꽃이 피는가』, 깊은샘, 2021.
- 이동식, 『道정신치료입문』, 한강수, 2008.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 2006.
- 정기석, 『마을학개론』,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정인석,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대왕사, 2009.
- 정효구, 「시적 감동에 대한 불교심리학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71, 2015, 127-160쪽.
- 현대시, <영상으로 보는 한국의 시인들1 : 魂의 시인 서정주>, 시네텔서울, 1998.
- 다무라 아키라, 『마을 만들기의 발상』, 강혜정 옮김, 소화, 2005.
- 모팻, 마크, 『인간무리 : 왜 무리지어 사는가』, 김영사, 2020.
- 월버, 켄, 『의식의 스펙트럼』, 박정숙 옮김, 범양사, 2006.
- 호킨스, 데이비드, 『의식혁명』, 백영미 옮김, 판미동, 2011.

<Abstract>

The Village Narrative and Sublimation Mechanism in Seo Jeong-joo's *Myth of Jilmajae*

Jeong, Hyo-Go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lose the fact that, under the discretion that the quintessence of Seo Jeong-joo poetry in his 6th Poetry Collection, *Myth of Jilmajae* (1975) as well as containing the power to be referred to as 'classic', one of the important causes is fully retained in the village narrative and sublimation mechanism.

Myth of Jilmajae paired with the earlier poetry collection of Seo Jeong-joo in *Dongcheon* to realize the quintessence of Seo Jeong-joo poetry in the aspect of principle and reality as well as theory and actuality. The village narrative and sublimation mechanism of innate within *Myth of Jilmajae* displays this point well, and furthermore, it looks at the reality of a village that began as a group of human survival in realistic ways to demonstrate the appearance of resolve issues and enhancing the same by the diversified and yet high level of spirit.

When the village narrative within *Myth of Jilmajae* is classified for the standards in realistic issues, it is divided into disability narrative and disease narrative, livelihood narrative and living narrative, erotic narrative and marital narrative, and, education narrative and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riendship narrative. The realistic issues here become the starting point of the narrative, and in turn, it is ultimately resolved and healed by the mechanism of sublimation in a way of bringing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growth and maturity for the entire village including the applicable parti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contained in the village narrative of *Myth of Jilmajae* is that this both sides exist together within the narrative to make the multilateral relativity. Among them, the mechanism of sublimation in particular uses extremely outstanding level and method to lift up the structural aspect of the narrative as well as the entire contents into the great tension and consensus.

The main mechanism of sublimation innate in *Myth of Jilmajae* i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ethics consciousness, revered consciousness and mentality of humbleness, universe consciousness and non-boundary consciousness, world of inactive and unlimited consciousness, metaphysical faith an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and so forth. Such a mentality of village narrative and sublimation may provide important point of contemplation in the future for so-called 'village studies' that is the subject of interests within the contemporary society.

Key Words: *Myth of Jilmajae*, village, human swarm, survival, village narrative, sublimation mechanism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07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